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년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일(금)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대독)를 하였습니다.

<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요 >

* 일시 : 2025. 1. 3(금) 14:00 ~ 14:40

장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주최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권 6개 협회 공동주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신 년 사

- 범금융 신년인사회 -

2025. 1. 3.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상 목

금융인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님 등
6개 금융권협회¹⁾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융인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입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 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내외 불확실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금융권도 총당금 확충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금융인 한 분 한 분이

외국인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알리는 민간 국제금융협력대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금융인 여러분의 건승과

우리 금융산업의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